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아이들은 매일 법당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될 것을 부처님과 약속한다.

16명 아이들의 보금자리 보광정사

스님아빠의 자식사랑

강석, 최지연, 김종범, 안덕현, 김경호, 서영준, 최병준, 김기훈, 윤현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제 각각의 성을 가진 이 아이들 16명은 스님을 아빠로, 또 엄마보살, 할머니 보살을 의지하며 부산의 보광정사에 모여 살고 있는 가족이다.

보광정사의 주지인 지홍스님이 처음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은 17년전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누우이를 맡으면서부터. 이후 13~14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다 갔고 이후 소문을 듣고 하나 둘 모여든 아이들이 16명으로 늘어나 대가족이 되어 버렸다.

미인가... 보조금 없어

지홍스님은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보니 스님아빠가 되었다"며 웃었지만 속이 편치만은 않다. 부모가 없는 고아보다는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의면한 경우가 더 많은 까닭이다.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어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깊어진다는 의미이니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곳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라서 정부보조금은 일체 없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생활비 일체는 보광정사 신도회가 관리하는 사찰재정으로 충당된다. 또한 스님이 매일 5~6시간씩의 개인택시 영업을 해 벌어들인 수익금도 고스란히

쏟아붓는다. 지홍 스님은 8년 전부터 개인택시를 해왔다.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 하고 있는 택시 운전은 도심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스님만의 포교 방편이자 아이들 생활비를 버는 수단이기도 하다.

내색하지 않지만 스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쌀과 부식의 일부는 신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신도들로부터 받는 매달 운영비와 택시로 번 돈으로는 16명 아이들 먹는 것조차 빠듯하다. 스님은 "공한 것을 알아야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엄하게 기른다는 것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감추려했지만 마음은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세상 어느 곳에 서도 변치 않는 것이 부처님 진리이므로 언젠가는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 덕분에 장래 희망이 '스님'인 아이들이 많아 스님은 자식을 제자로 맞을 날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로 생활비

스님은 "잘 먹고 입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성원해주는 불자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방법: 계좌 101-021307-04-017(중소기업은행) 예금주 보광정사 051524-8932
글·사진 = 부산/천미희 기자

3월 30일 (토)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이런 염려를 한 번쯤 해본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옥수복지관의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초등학교 1~2학년생 강좌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3~4학년생 강좌 오후 2시, 5~6학년생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서울 옥수동 본원. 참가비는 8만원이다. (02)2282-1100

3월 31일 (일)

■연화복지회 '위빠사나 선 명상교육' = 미안마 선원 주지인 산디마 스님에게서 남방불교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

신행 캘린더

어볼 기회. 또한 농아불자들을 위한 수화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오전 11시 서울 광림사 내 연화복지학원. (02)2202-5831

4월 1일 (월)

■원심회 '점자·수화교실' =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 원심회는 장애인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고통을 함께 해보는 점자·수화교실을 마련했다. 매주 월·목 오후 7시 조계사 불교대학. 3개월 과정의 본 강좌 참가비는 초급 4만원, 중급 5만원. (02)720-4528
■공정사회종합복지관 '아동정보

4월 2일 (화)

화교실' = Window Me 사용법, 기초 인터넷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공정사회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했다. 화·목 오후 1시 복지관 정보센터. 참가비는 무료. (051)363-2063

4월 3일 (수)

■은평노인복지관 '늘 푸른 교실' = 노인들을 재교육시켜, 평생 쌓아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3개월 과정의 본 강좌 참가비는 초급 4만원, 중급 5만원. (02)720-4528
■지남 1월 '늘 푸른 교실' 현장 실습 모습.

은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자는 취지의 '늘 푸른 교실'. 노년화, 교육 지도방법론, 인간관계론 등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개강일은 이날 오후 2시. 수업은 월·목 10시 30분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강의료는 무료. (02)385-1351

■국청회 '선사상' 강좌 = 보조사 상연구소 실장인 인경스님을 통해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3개월 과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대승선의 이해'. 월 회비 1만원을 내면 국청회에서 진행되는 다른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02)730-1249

■자비행회 '육락 스님 초법회' = 자비행회는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홍사단 빌딩에서 영주 대연사 주지 육락 스님을 초청,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참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02)591-3545

4월 4일 (목)

■신앙인 아카데미 '동서종교 수행법' 강좌 = 동국대 윤영해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수행법 강좌.

4일은 '불교의 염불과 득경. 11일에는 '좌선과 참선'이란 주제의 강좌가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참가비는 강좌당 8천원. (02)776-4121

■터사랑 '성지순례' = 국보 47호 진감전사 대공탑비, 보물 380호 쌍계사 부도, 보물 500호 쌍계사 대웅전,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평사리...

이번 여행의 출발은 저녁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5만5천원. (02)725-1284

수행·포교 실천하는 참불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안양 망해암 봉사회 강해정 회장

"'상구보리 하회종생'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생 제도, 즉 포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 실천하는 불자가 참 불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관악산 끝자락 안양 망해암에서 16일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해정(67) 보살을 만났다. 참선법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중 일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람이곳곳을 안내하면서 강 보살은 수행과 포교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부지런히 설명했다.

제 1대 봉사회 회장을 맡아 2년 동안 활동했던 강 보살은 봉사회 제 4대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됐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의,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도 강 회장은 도반(강 보살은 회원들을 도반이라고 표현했다)들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

강 보살은 1대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3개 지역장 중 하나인 안양 동안구 지역장을 맡기도 했다.

"회장을 하다가 곧바로 회장 아래 지역장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선법회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가 제 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아مان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장 소임을 더 열심히 수행하기로 했지요."

강 보살은 이 일을 계기로 한시도

항암치료 고통속 염불 참선 계속

"도반과 실천하는 봉사회 만들터"

화두를 놓지 않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더욱 용맹정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99년 10월, 강 보살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찾아간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 받던 동안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누워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과 미륵부처님을 염송하고, 앉아있는 동안에는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 쓰러진 것도 수십 번. 신앙심으로 육체적 고통에 맞서 싸운 강 보살의 노력은 6개월이 지나면서



강해정 회장(맨 오른쪽)이 망해암 선법전에서 주지 법두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봉사회 회원들과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없이 큰 환희심을 느끼며 수행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게 됐다.

"망해암은 시민선방을 열어 불자들이 찾고 있지만, 산중사찰이다 보니 불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도들이 지역별로 손서를 정해놓고 사찰에 올라와 내 집처럼 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의적인 발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지요."

망해암 신도들은 사찰 중창 불사는 물론 공양을 짓고 법당을 청소하

는 일까지 당면제를 활용하고 있다. 안양 동안구과 만안구, 경기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서 10일동안 사중 업무를 돕는 제도가 체계화되고 있다.

강 보살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망해암에 들러 사중 일을 돕는다. 30년째 사중 일을 내일처럼 솔선하며, 도반들을 격려한다.

"봉사회는 정기적으로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강조하면서 실천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이지요. 봉사활동은 수행의 연속이자 수행을 사회에 회향하는 실천이며 포교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서원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요."

주년의 날

법두 스님 망해암 주지

망해암에는 요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사격을 갖추기 위한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봉사회'로 불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준 불자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봉사회는 참선법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임이지요. 망해암의 명들을 꼽으려면 단연 봉사회가 될 것입니다.

강해정 보살은 제1대 봉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제4대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신도들로부터 받는 신앙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이겨내고 다시 수행과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강해정 회장이야말로 여러 불자들에게 진정한 사표가 될 것입니다.

14일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해정 보살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 병행하는 봉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참선법회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평소 지나면 화두도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다. 강 보살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는 봉사회로 꾸러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 박봉영 기자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작년에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2002년도는 아래와 같이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시: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 ◆ 장 소: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 내 용: 염불정진의 본행사
- ◆ 신청대상: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 732-1215~7 / FAX 02) 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밀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54-3733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